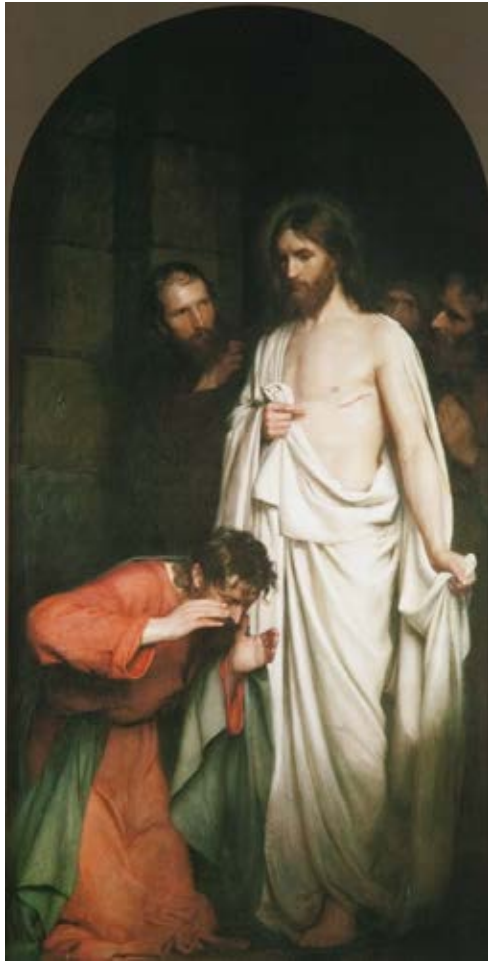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8-29)



〈의심하는 토마스〉, 칼 하인리히 블로흐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 1베드 1,3-9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시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곶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स्या,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 요한 20,19-31

[제1독서] ..... 사도 2,42-47

[화답송] ..... 시편 118(117),2-4,13-15,22-24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30] 예수 부활하셨네
  - 봉헌성가: [139] 알렐루야
  - 성체성가: [151] 주여 임하소서
  - 파견성가: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sup>19</sup>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sup>20</sup>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sup>21</sup>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sup>22</sup>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sup>23</sup>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sup>24</sup>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sup>25</sup>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sup>26</sup>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sup>27</sup>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sup>28</sup>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sup>29</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sup>30</sup>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sup>31</sup>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하느님의 자비 주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하였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며,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린다.

## 복음 묵상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가 요한 사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에 시선을 모으며 주님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죄의 용서를 위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어 살아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창세 1,27; 2,7 참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첫 창조에 견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 창조의 특권은 성령을 통한 ‘죄의 용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토마스는 동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몸의 상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문이 잠긴 집 안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어 토마스를 부르십니다. 요한은 토마스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구멍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 보고 눈으로 확인하였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신앙 고백만을 전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예수님께서서는 의심 많았던 토마스를 조용히 꾸짖으시고, 육체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게 될 세대들에게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은 그 본연의 목적대로 하느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닮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활을 지금 우리 안에서 되살리며, 두려움으로 꼭꼭 닫아 버린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 죄의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 “이기심과 분열이 아닌 연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긴급 상황과 자국민 보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에, 이 시간부터 앞으로는 무관심, 이기심, 분열과 망각같은 말을 없애고, 글로벌 휴전을 통해 분쟁을 멈추며, 국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다면 줄여주면서 국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바티칸 대성전 내부 중앙제대(‘고백의 제대’) 문 앞에서 진행된 ‘로마와 온 세상에’ 보내는 부활 메시지와 교황 강복(Urbi et Orbi)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예년처럼 성 베드로 광장에 올려퍼지는 울림과 강복의 발코니에 대한 시각적 강렬함은 없었지만, 올해 위성 방송으로 중계된 교황의 부활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목소리와 함께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으로 강하게 퍼져나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교황은 다섯 대륙에 관한 언급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축하하거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의 말이 아닌, 죽음을 이기는 사랑, 곧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배타적 표시”인 악을 물리치는 선에 대한 확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미 너무 많은 희생자를 내고 모든 국가의 경제에 피해를 입힌 코로나19로 인해 상처입고 슬퍼하는 인류에게 “희망에 대한 감염”과 이러한 자유의 힘을 기원했다.

### 하느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교황의 첫 관심은 다시 한번 환자들, 세상을 떠난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로 향했다. 이어 노인들과 같이 가장 약한 이들, 요양원, 군 막사,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신의 고통부터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으키고 있는 애도와 불안을 경험한 많은

이들에게는 외로운(고독한) 부활입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서 애정뿐 아니라 각 개인이 성사, 특히 성체성사와 화해성사에서 흘러나오는 위로를 받을 가능성도 빼앗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성사를 받기란 불가능하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일치하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 머리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힘차게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 국제 제재 완화하기

교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치료와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의사와 간호사와 일상의 영웅들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이들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헌한 경찰들 △실직으로 고통받는 이들 △모든 이로 하여금 품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떠올렸다. 이어 교황은 가장 약한 이들과 세상의 변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없애고,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적절한 의료 원조의 가능성 모색을 촉구하라고 청했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몇몇) 나라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가로막는 국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국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다면, (적어도) 줄여줌으로써 모든 나라가 제때 필요한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유럽의 도전

교황은 우리가 처한 도전이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무관심이 아닌 일치, 이기심이 아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연대의 이름으로’ 유럽이 오래고도 새로운 적대감을 극복하고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인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해결책을 활용함으로써 연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선택은 오로지 개별 이익에 대한 이기심,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유혹뿐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평화로운 공존과 발전을 흑독하게 시험하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 분쟁과 무기매매 중단

교황은 전 세계를 강복하기에 앞서 경계를 모르고 퍼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이미 지난 3월 29일 삼종기도 당시에 했던 호소를 반복했다. 곧, 지난 9년의 전쟁을 통해 38만4000명의 사망자를 낸 시리아를 시작으로 “세계 모든 지역의 즉각적인 글로벌 휴전”을 호소한 것이다. 교황은 또 예멘, 이라크, 레바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끔찍한 테러를 겪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도 기억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열시키는 오랜 분쟁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지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양측 모두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곳에서 즉각적인 글로벌 휴전을 위한 호소에 응답하는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분쟁의 책임을 지닌 이들을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돼야 할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면서, 끊임없이 전쟁무기를 생산하고 매매할 시기가 아닙니다.”

### 망각에 굴복하지 말기

교황은 분열과 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위험이란 난민, 피난민, 굶주린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과 함께 지고가기보다는 많은 긴급사태, 전쟁, 기근, 가뭄을 망각속에 내버려두는 일이라고 교황은 지적했다. 교황은 아시아와 모잠비크 북부의 카부 델가두 주 지역과 같은 아프리카를 넘어 중동을 지나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적 위기를 먼저 언급했다.

“생명의 주님 (...) 특히 리비아 및 그리스와 터키 국경, 그리고 레스보스 섬의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호하소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가 어린이들입니다. 정치, 사회경제, 의료가 심각한 상황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제적 지원을 허용하도록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교황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전대사를 부여한다고 선포한 후 ‘로마와 온 세상에’ 교황 강복을 내렸다.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인준 2020. 2. 26-



<http://www.stpaulchung.org/mass.html>

- 성 정바로 성당 웹사이트를 통해 **본당 미사를 생중계**하니  
신자분들은 가정에서 미사 참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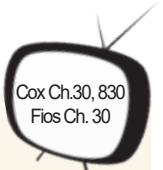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성사에 대하여

- **병자성사 및 병자 영성체** :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혼인 및 장례예식** : 혼인예식을 연기하지 못하는 상황과 장례예식은 10명 이하의 직계 가족 참석하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신영성체** : 영적(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원의를 지닌다면 성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업무 안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당 사무실은 예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장례예식, 개별 미사 지향, 교무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3-968-3010)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4월 24일(목) 오후 5:00-6:00
  - 4월 24일(금) 저녁 8:00-9:00
  - 4월 26일(일) 오전 6:00-7:00
- **특집: 임 따라 한평생 - 말씀의 구도자 이병호 전 전주교구장 1**



###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4월 22일(수) 오전 6:15-6:45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4월 25일(토) 오전 8:00-8:30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4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부활을 축하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21)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소아전문 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커머셜 김준 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 · 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뉴욕라이프</b>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b>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클로이 양 부동산</b>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b>GCOOP 케어셀라</b>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